

## 얼음판의 '형제 3총사' 스틱쇼 펼친다

여수 한려초 7세소년 어동건 동계체전 최연소 출전  
 동길·동경 형들과 아이스하키 초등부 전남대표로

'아이스하키 소년' 어동건(여수한려초 1년·7세) 군이 내달 2일부터 강원도 등서 열리는 제91회 동계체육대회에 가장 어린 나이로 출전해 화제다. 특히 어동건 군의 형들인 동길(여도초 4년)·동경(여도초 3년) 군도 이번 대회에 함께 참가해 '형제 3총사'의 응감한 빙상 투혼에 대해 체육 관계자들이 벌써부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 삼형제는 전남 아이스하키 초등부 대표팀인 '선사인 이글스(이하 이글스)' 클럽 소속이다. 동계체전 초등부 아이스하키

를 클럽팀 출전이 가능하다. 이글스팀에는 동건이와 1학년 동급생이 있지만 동건이가 한 살 더 어려 최연소 선수가 되었다.

"형들하고 같이 대회에 나가니까 떨리지 않아요. 나도 꼭 경기에 뛰고 싶어요"

1년전 아이스하키를 배우러 가는 형들을 따라 나섰다가 운동을 같이하게 된 동건 군이 대회 출전 소감을 또렷한 목소리로 밝혔다. 동건이에게 처음으로 아이스하키 스틱을 잡게한 이글스 김대식 감독은 "기본 동작 시

범을 보여주면 제법 잘 따라하고 무엇보다도 스케이팅을 즐겨해서 부모에게 운동시키 볼 것을 권유했었다"면서 "아직 어려서 기량은 부족하지만 하고자 하는 의욕만큼은 고학년들 못지않게 강하다"고 동건의의 집념을 높게 평가했다.

스틱을 잡기도 힘겨워 보이는 동건 군은 "스틱이 무겁지 않아요. 형들 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하면서 기업을 토한다.

동길·동경 군은 둘 다 공격수로 라이트 윙과 레프트 윙으로 팀의 양 날개를 책임지고

있다. 경기감각이 뛰어나다는 동길 군은 "동생들과 함께 출전하게 돼 기쁘고, 동계체전에서 꼭 끝을 넣어 엄마께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리고 싶다"며 큰 형으로서 제법 의젓한 출전 각오를 밝혔다.

삼형제의 어머니 주정림(38)씨는 "동경이 친구 부모들의 소개로 운동을 시작했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씩씩해져서 막내까지 운동을 시키게 됐다"면서 "이 운동을 통해서 형제들간에 우애가 더욱 두터워진 것 같다. 이번 대회가 애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계체전에 첫 출전하는 이글스팀의 선전과 함께 이들 삼형제의 빛나는 활약이 기대된다.

이번 대회 최고령 선수는 빙상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일반부에 나서는 70세 박선규



내달 열리는 동계체육대회에 전남 초등부 아이스하키 대표로 출전하는 '선사인 이글스' 소속 3형제. 왼쪽부터 어동길·동경·동건 군.

(서울)씨이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11일 이번 동계체전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선수와 임원 3천572명(임원 1천 228명, 선수 2천344명)이 참가 신청서를 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대회 참가 인원은 지난해 보다 138명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이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 지옥의 랠리

12일(한국시간) 칠레에서 열린 2010 아르헨티나~칠레 '다카르 랠리' 9구간(코피아포-라 세레나) 경기에서 선수들이 팬들의 응원을 받으며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 프로야구 올해도 '무승부=패'

KBO, FA 선수 연봉 인상 상한선·다년계약 금지조항 폐지

2010 프로야구에서도 무승부는 패배로 남는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2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유영구 KBO 총재와 각 구단 대표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무승부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KBO는 지난 시즌 12회까지 승부가 가려

지지 않으면 무승부로 해 이를 패배로 계산하는 승률 계산방식을 도입했다. 이 규정에 대해 김성근 SK 감독 등 일부 감독들이 반발을 하면서 폐지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무승부 규정이 시행된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해 마찬가지로 승률은 승리 경기 수를 총 경기 수로 나눠 계산한다.

자유계약선수(FA)가 전 구단에서 받은 연봉의 50%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한 인상 상한선은 폐지됐다. FA 선수들의 다년계약 금지 조항도 폐지됐다.

또 경기 중 벤치에 들어갈 수 있는 코치 수는 6명에서 8명으로, 트레이너는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2010년도 KBO예산을 116억9천만원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MLB 홈런왕' 맥과이어  
 선수시절 약물복용 시인



이용대(오른쪽)와 아이돌 그룹 2PM의 태국출신 가수 닉쿤이 12일 2010 빅터 코리아오픈배드민턴선수시리즈가 열린 올림픽공원에서 친선 이벤트 경기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닉쿤은 미국 학창시절 학교 배드민턴 대표 선수로 활동했었다. 연합뉴스

'홈런왕' 마크 맥과이어(47)가 선수 시절 스테로이드를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AP통신은 맥과이어가 "홈런왕에 올랐던 1998년을 포함해 약 10년 동안 부정기적으로 스테로이드를 복용했다"고 인정하는 성명서를 보내왔다고 12일(한국시간) 보도했다.

맥과이어는 성명서에서 "1989년과 1990년 오프시즌 동안 아주 잠깐 스테로이드를 복용했으나 1993년 부상 이후 다시 약물복용을 대거 시작했다"며 "1990년대 중반 나는 7차례나 부상자 명단에 올랐고 5년 동안 228경기를 빠져야 했다."

너무 힘든 시간이었고 스테로이드가 이를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했다"고 전했다.

맥과이어는 이어 "많은 이들이 약물 없이 성적을 낼 수 있었겠느냐고 의심하겠지만, 약물을 복용해 좋았던 시즌도 있지만 여전히 나빴던 시즌도 있었다"고 방어하면서 "어쨌든 나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KIA 타이거즈 영화관 나들이

오늘 '주유소 습격사건2' 시사회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영화관 나들이에 나선다. 일본 미야자키 전지훈련을 앞두고 있는 선수단이 13일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메가박스에서 열리는 'KIA 타이거즈와 함께하는 주유소 습격사건2 특별 시사회' 초대를 받았다. 이번 시사회는 이종범과 '주유소 습격사건2'의 김상진 감독의 특별한 인연으로 이뤄졌다. 두터운 친분이 있는 두 사람이

특별한 만남을 주선하면서 시사회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특별 시사회에는 판 출국 선수들을 제외한 이종범, 최희섭, 김중국, 나지완, 한기주 등 선수단 전원이 참가할 예정이다. 선수단 가족들도 함께 관람에 나선다. 한편 지현우, 조한선, 문원주 등이 출연하는 '주유소 습격사건 2'는 오는 21일 전국에 개봉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김대은-정경은 짝 가볍게 본선행

빅터코리아오픈 배드민턴

한국 셔틀콕의 기대주 김대은(원광대)-정경은(KT&G)이 2010 빅터코리아오픈 배드민턴선수시리즈에서 예선을 거쳐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김대은-정경은은 12일 올림픽공원 내 펜싱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첫날 혼합복식 예선에서 최승일(화순실고)-강가희(포천고)를 세트스코어 2-0(21-13 21-9)으로 제압하고 본선에 올랐다. 남자단식에서는 이철호(수원시청), 장영수(김천시청), 김사랑(인하대)이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연화(대교농고), 주은애(KT&G)는 여자단식에서 본선에 합류했다. 연합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www.kihf.com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송파점 (062) 227-9970

소문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덕산점 (062) 851-2422